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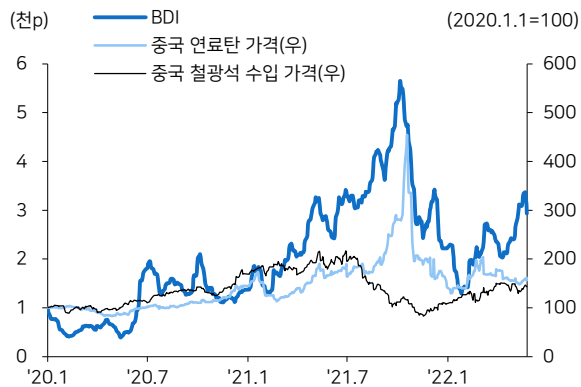
2022. 5. 31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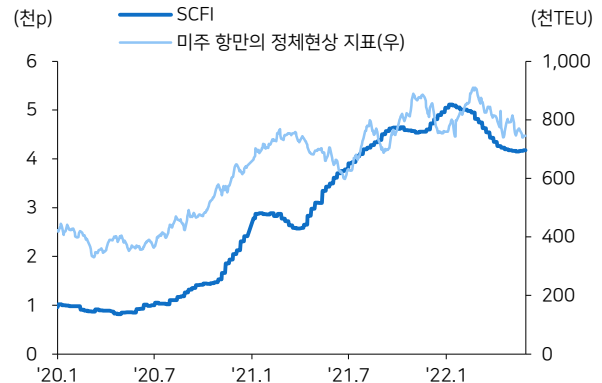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71p(-11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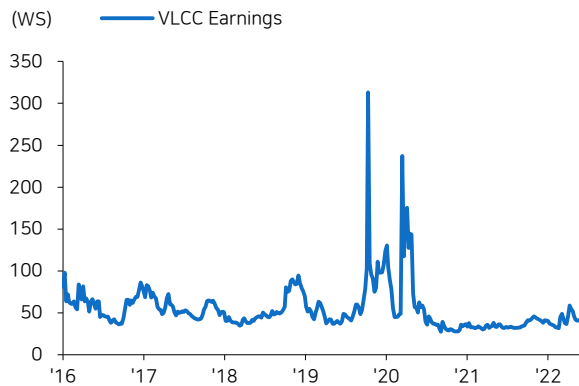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75.4(+12.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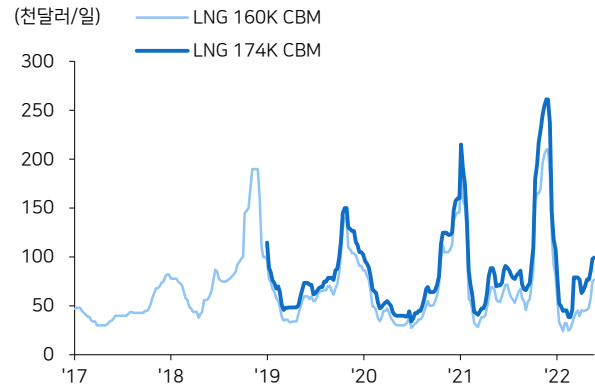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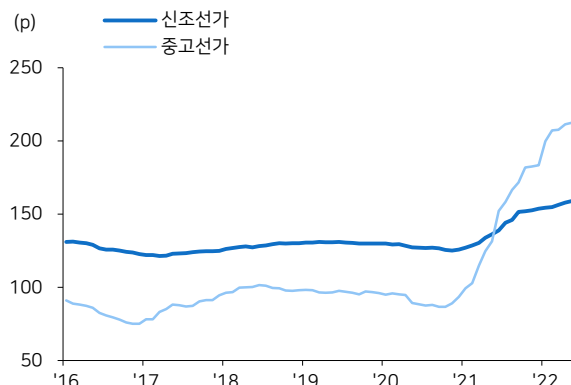
42.3p(+1.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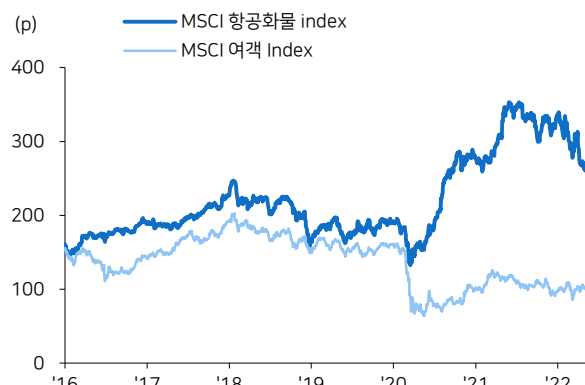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76.8p(+2.0p WoW)
99.5p(+1.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1p(+1.1p WoW)
211.5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66.4p(+4.6p DoD)
102.2p(+1.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Heavy Industries takes rare feeder container ship order from Tsakos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Tsakos Group으로부터 피더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4척의 2,8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2023년말 ~2024년초 사이 인도될 예정임. 선가는 척당 4,700만달러수준임. 현대중공업은 주로 7,000TEU 이상의 대형 선박들만 건조하지만 프리미엄을 얻은 선가에 수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wo LNG carrier newbuilding resales draw a crowd

나이지리아 에너지 업체가 LNG운반선 2척을 리세일한다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되고 있는 174,000CBM급 선박으로 당시 높은 가격이었던 척당 2.24억달러에 발주된 바 있음. 최근 리세일에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척당 2.26~2.28억달러에 매수하겠다고 나섰다 알려짐. 해당 선박의 인도기한은 2025년인데, 최근 대형 LNG 조선소들의 건조슬랏이 없어 2026년까지도 타이탄한 상황으로 보도됨. (Tradewinds)

케이프 시장 하락세

지난주부터 벌크 시장은 케이프 시장이 폭락하는 등 모든 선형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해상운임 선물거래(FFA) 시장이 침체되며 시황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됨. Capesize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확장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회복 기대감이 무너져 하락함. 중국 재봉쇄 가능성이 고조되며 철광석 수요도 급감함. 또, 인도가 문순 우기로 접어들며 석탄 수입이 감소함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됨. 그러나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향후 선박부족으로 선적이 미뤄졌던 수요 중심 반등을 전망함. (코리아쉬핑가제트)

Clarksons 'broadly positive' on 2023 as tanker demand growth pegged at 4%

Clarksons는 2023년 탱커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원유교역항로 마일 수가 증가하며 수요는 DWT기준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선대 증가율은 1% 미만이고, 친환경 규제가 시행되며 시황 개선의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설명함. (Tradewinds)

EU,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 실패

유럽연합이 헝가리의 반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됨.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알려짐. 헝가리는 크로아티아의 송유관 설비를 확장하도록 EU가 재정지원을 할 것을 요구함. (파이낸셜뉴스)

티웨이항공, 인천~싱가포르 노선 취항...국내 LCC 최초

티웨이항공이 국내 LCC 최초로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고 보도됨. 우선 주 2회 운항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편을 통해 매일 운항까지 확대할 계획임. 인천~싱가포르 노선에는 2022년 도입한 대형기 A330-300이 투입된다고 알려짐. (에어진)